

코로나19 위기 대응 3059억원 추가 편성

전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해고 없는 도시' 추진 위한 고용유지 지원사업 예산 등 추경 편성·심의 요청

전주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해고 없는 도시' 추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사업 예산 등 총 3059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일깨워 세우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2271억원 △'해고 없는 도시 전주' 고용유지 지원사업 7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500억원 등 305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주시 올해 전체 살림살이는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조2587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783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5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39.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7.5억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45억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12.8억원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14억원 △코로나19 관련 택시·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 36.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16.5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2.7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고용유지 지원사업 예산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21억원 △고용유지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훈련수당 21억원 △고용보형 미가입자 지원 4.3억원 △고용유지 관련 종합컨설팅 등 현장지원 안정자금 이차보전 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연장지원 1.5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금융지원 3.5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직업훈련비 지원 8.5억원 등을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예산의 경우 △관광거점도시 육성 선도사업 66억원 △지역화폐 운영 33억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67억원 △전주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47.3억원 △택진보건소 건립 20억원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10억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18.8억원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소 조성 12.5억원 △전기자전거 구매지원 10억원 △아동수당 지원 22.6억원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25.8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8억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0억원 △공공형 버스 8억원 등이 책정됐다.

시는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잉여금, 지방채, 기금채원 등을 활용하였고,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상반이 중 취소·축소된 행사의 삭감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개최되는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원하는 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서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고용절벽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업들이 편성돼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 악취 문제 해결 나선다

전주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

전주시가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밀진단에 나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9700만 원을 들여 전주한옥마을의 하수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주한옥마을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앙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한 전주한옥마을 일원의 하수관로 18.1km에 대한 하수관로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연막시험과 CCTV 조사 등 상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상세조사를 통해 잘못된 연결된 우·오수관으로 인해 하수도 악취가 발생하는 지 여부와 관로 내부경사로 인한 슬러지(침전물) 적체 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상세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오수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악취해결 개선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시는 단계적으로 보수·보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투입해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해 하수관로를 정비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정기적인 관로 점검과 하수도준설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관로가 정비되면 악취를 저감해 거주민과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옥마을에 대한 하수관망도(GIS)를 구축하고 하수도대장도 최신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한옥마을 악취문제 개선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여행객 모두가 쾌적하게 한옥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초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부산 20대 여성 사신 원주에서 발견 '지문일치'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된 20대 여성의 사신이 완주군의 농장에서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께 완주군 상판면의 복숭아 농장에서 실종된 A(29)씨의 사신이 나왔다. 농장에서 작업 중이던 농장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사신의 지문을 감식한 결과 실종된 A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가 진행된 사신은 파수원 한쪽 나무 밑에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A씨의 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B(31)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B씨 차량에서 A씨의 머리카락 등 유전자(DNA)를 확보한 바 있다.

/뉴스1

'전주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위촉식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첫 자문회의서 부모교육 심도 있는 논의 가져

전주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현대해상빌딩 8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대표, 이호준 전주대학교 교수 등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야호 부모교육은 △야호 숲놀이터 확충 △야호 책놀이터 조성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 △전주형 창의학교 야호학교 확대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전주시 야호 5대 플랜에 포함된다.

전주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는 향후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주시 야호부모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방향 설정 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위원들은 이날 첫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전주시 부모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



전주시는 12일 현대해상빌딩 8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대표, 이호준 전주대학교 교수 등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다.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은 자녀와 가족, 지역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부모양성을 목표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교육운영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부모교육 커뮤니티 구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민선5차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장은 "재

로운 꿈을 꾸며 미래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이 되어줄 부모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역세권 활성화 추진

지역역량강화사업·문화·축제·지역상가 지원 등 추진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주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축제도 열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역 앞 첫마중권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과 '문화·축제', '지역상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청년층을 위한 축제와 문화행사, 기획 전시회에 참여할 주체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우아한 뉴딜 청년연구소'가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업종전환에 관심 있는 숙박업·요식업·유흥업종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태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교육하는 특강인 '우아한 뉴딜 상인연구소'가 추진된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마을기자단 양성과정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마을 정

기간행물인 '우아한 거리의 소식지' 제5호도 발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사업과 주민참여 도시녹화 프로그램, 첫마중길 당사문화축제 등 전문분야를 개연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문화·축제의 경우, 시는 올해 지역축제에 대한 학습과 기획 및 실행교육을 통해 축제기획단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전주역세권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축제포럼을 열고, 1박2일 축제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끝으로 지역상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악화된 지역 상인들을 위해 건물임차인과 임대인간 상생협약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존상가의 업종전환과 경영기법을 교육하는 창업교육과 기존업종 컨설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부동산 기본정보, 임대현황, 상권정보 등 기초분석을 통해 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